눈에 갇힌 광주…출근은 버스로

광주지역에 10㎝ 가까이 많은 눈이 내린 6일 아침,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승용차 대신 버스로 출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또 눈

어제 빙판길 출근전쟁 속 교통사고 속출

순천서 차량 9중 충돌 … 시·도 비상 근무

대설(大雪)인 7일 오전 광주·전남지역에는 최고 5㎝의 눈이 또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5~6일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있어, 더 큰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쪽지역에서 시작된 눈이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적설량은 1~5㎝,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예상된다.

이번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비로 바뀌거나 그쳤다가 밤늦게부터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며 "9일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광주·전남지역은 광주 9.6㎝를 최고로 곡성 9.5㎝, 장성 6.5㎝, 담양 6㎝, 순천 5.1㎝, 영광 3㎝, 진도 2.9㎝, 목포 2.4㎝ 등의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보성군 벌교읍 2번 국도에서 유모(55)씨가 운전하는 무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함께 타고 있던 윤모(51)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동승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커브 구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자정께에는 순천시 순천IC부근 고가도로 내리막길에서 김모(57)씨가 몰던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최모(22)씨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행중이던 차량 9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최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고 출근길 시민들이 큰 혼잡을 겪었다.

또 눈과 함께 강풍이 불어 지난 5일 광주를 비롯해 강진, 목포, 함평 등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곧장 복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곳곳에서 운행중이던 승강기가 멈춰, 구조대원들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특별 대책기간'에 대비해 개설도로 7439개 노선 1578㎞ 구간에 대해 도로관리기관별 제설대책팀을 구성·운영중이다. 전남도도 단계별(대비·주의보·경보·피해 발생) 대책을 마련해 제설 중점구간을 위주로 비상근무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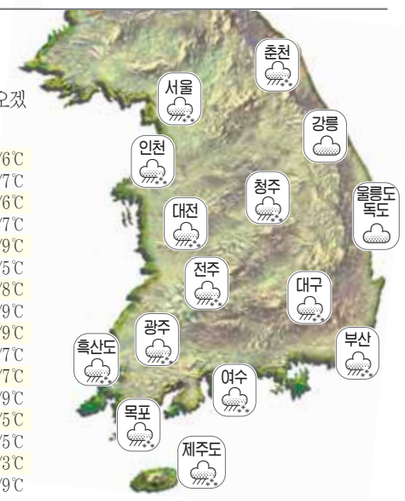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8분 해짐 17시 20분 / 달뜸 00시 22분 달짐 12시 45분

대설(大雪)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비또는눈	-3/6℃
목 포	흐리고비또는눈	-1/7℃
여 수	흐리고비또는눈	0/6℃
나 주	흐리고비또는눈	-4/7℃
완 도	흐리고비또는눈	0/9℃
구 례	흐리고비또는눈	-3/5℃
강 진	흐리고비또는눈	-2/8℃
해 남	흐리고비또는눈	-2/9℃
장 흥	흐리고비또는눈	-2/9℃
순 천	흐리고비또는눈	-3/7℃
영 광	흐리고비또는눈	-3/7℃
진 도	흐리고비또는눈	-1/9℃
전 주	흐리고비또는눈	-3/5℃
군 산	흐리고비또는눈	-3/5℃
남 원	흐리고비또는눈	-4/3℃
흑산도	흐리고비또는눈	4/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밀물	썰물
목포	07:43 20:08	00:50 13:08
여수	02:53 15:16	08:55 21: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 씨						
최저/최고	-4/3	-4/3	-3/5	-2/6	-1/7	0/8

광주 소아 감염병 '성홍열' 환자 급증

올들어 66명…2년새 3배이상 늘어

광주에서 소아 감염병인 '성홍열' 환자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병·의원을 찾은 성홍열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출률을 조사한 결과, 올 11월말까지 의심환자 129명 중 51.2%인 66명이 성홍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16.7%(54건 중 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0년 106명에서 2012년 현재 734명으로 성홍열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 9월부터 성홍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확진환자뿐 아니라 의심환자도 신고하도록 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성홍열은 3군 법정감염병으로 목 통증과 39℃ 이상의 고열, 두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발병 12~48시간 뒤에는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선홍색의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특히 목젖 위에 출혈반점이 생기고 혀의 특정부위가 부어 딸기모양(strawberry tongue)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기침 등 호흡기를 통해 3~10세 어린이에게 감염되며, 전파력이 강해 발병 확인 시 24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성홍열은 치료시기가 늦어질 경우 심장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광주시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홍열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며 예방백신이 상용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시·도교육청 감사관 연임

'삼성 비자금 특검'의 단초를 제공했던 김용철 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의 연임이 확정됐다. 김승태 전남도교육청 감사관도 연임하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김 감사관이 최근 감사관 공모심사 결과 적격자로 단수 추천돼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경찰간부, 공인회계사 등 모두 4명이 응모했으나, 최종 면접에는 3명이 불참해 김 감사관만 응했다.

김 감사관의 임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이다.

광주 출신인 김 감사관은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부터 검사로 일하다 9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7년 10월 자신 명의의 계좌에 50억원대의 현금이 들어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폭로했다.

김승태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법시험 39회로 대구지검 검사를 지낸 후 광주지검 목포지청, 서울서부지검을 거쳤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